

1. 예수의 복음

막 1:1의 구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이다. 헬라어 본문을 현대 번역본들과 함께 비교해 보자.

GNT	Α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NRSV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NIV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개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표준새번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공동번역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우리말 성경에서 우선 눈에 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일반적인 번역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첫 번째 (물)이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 그런데 헬라어 문맥을 따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모두 동격(同格)으로 처리되어 있다. 곧 예수의 복음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설명이다(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아들’은 모두 예수를 부연 설명하는 서술명사(predicate noun)로 처리된다. 고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을 예수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읽고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초점을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는 예수가 주인공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스개 소리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姓)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예수는 고유명사로 이름(name)이지만 그리스도는 사장, 아버지, 대통령과 같은 직함(office)으로 일반명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라는 말을 풀어 쓰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는데, 실은 그 이상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서술형이다. 이것은 꽃이다. 저 사람은 교수다. 이 여인은 디자이너다. 이런 표현은 별다른 감정이나 의지를 담고 있지 않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차별화 선언이다. 이는 상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예수야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엄청난 반역행위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그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

헬라어 그리스도(Χριστός)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מָשִׁיחַ)를 번역한 말이다. 메시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이 수동형은 기름부음을 주는 이를 전제한다. 물론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대관식(戴冠式)을 거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을 대신해 신의 뜻을 행하는 이—그가 그리스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왕인데, 시편 2:2에 보면 열방이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고대 근동의 신학사관에 의하면 신들이 세상을 분배해 다스리고(신 32:8-9) 각각의 신은 자신을 대신할 인간 대리통치자를 정한다. 이들을 가리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시 2:7에 의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로 표현한다. 이런 사상이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통해 표출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물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헤롯이 분봉왕 역할을 했지만 그는 로마제국을 대표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은 그 기대를 뿌리째 뒤흔든다. 예루살렘 전통신학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다. 막 11:35에서 예수가 묻는다.

서기관들이 어째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전통적인 이해에 의하면, 그리스도(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는 말한다. 그 왕권체제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나? 억압과 착취, 빈곤과 굶주림이 아니더냐?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12:37).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곧 마가복음의 백성(ὄχλος)이 고대하고 마가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상(狀)은 예수라는 말이다.

헬라이어 본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왜 괄호 안에 처리되어 있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4세기 이후 니케아-칼케돈 신조 등을 거치면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후기 사본들에 반영된 듯하다. 여기서 그 논쟁을 되집어볼 수는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전해진 본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미 말했듯이 “하느님의 아들”은 고대근동에서 신의 대리통치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특히 로마 제국 하에서 황제(캐사르, Caesar)는 신의 대리통치자일 뿐 아니라, 신격화되기까지 했다. “신” “신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이 모두는 황제에게 부치는 직함이요, 찬사다. 이것을 시골 갈릴리 출신의 예수에게 부친다고 상상해 보자. 오싹한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시작부터 내건 정치적 슬로건이자 신학적 메시지다.

예수의 복음인가 예수에 관한 복음인가? 어떤 번역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반면(NRSV), 다른 번역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한다(NIV).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번역이다.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번역은 “예수의 복음”, 곧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이해다. 먼저 이 번역이 왜 문제시 될까? 그리고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 관점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예수가 전한 것이 “하느님의 복음”(1:15)이라고 이해한다면,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느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마가복음(마가의 복음). 이렇게 하느님의 복음은 예수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예수의 복음이 내포하는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의 복음, 로마제국이 전하는 복음과의 차별화 선언이다. 로마제국의 복음은 전쟁의 승리나 황제의 방문을 의미했다. 탐욕과 약탈로 점철된 승리—그것을 그들은 ‘로마의 평화’(Pax Romana)라 불렀다. 예수는 이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약속했다(요 14:27). 지배체제의 복음이란 늘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다. 이는 적자생존, 상위 1% 지배층을 위해서는 복음일런지 몰라도 피지배계급인 대다수 군중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의 식민지 사관이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의 복음이란 예수에 관한 복음들로부터 예수에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복음의 시작.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까? 처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시작부터 살펴보자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당시 바울 서신이 초대교회의 현존하는 유일한 문서라 보고, 고전 15:1-4에 따르면, 바울의 복음—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 뿐이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²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³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전부일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公生涯)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 면면히 흐

르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초한다. 이것이 “성경대로”(as it is written)가 뜻하는 바다. 이사야 40 장이 출애굽을 기초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인용하면서 지배체제와 로마제국으로부터 탈피를 꿈꾼다. 여기서 예수의 역할이란 하느님의 구원행위의 대리자로 등장한다. 예수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한다.

이렇게 복음의 시작(ἀρχή)에서 시작하다(ἀρχομαι)는 어떤 것의 처음과 실마리를 뜻한다. 헬라이어 아르케이(ἀρχή, arche)의 또 다른 의미는 “다스리다(ἄρχω)로 막 10:42에도 등장한다. 이와 연관된 명사형(ἀρχή)의 뜻은 다스림, 잣대, 기준, 모범, 규범이 되며, 따라서 “복음의 시작”을 다르게는 “복음의 규범,” “복음의 모범”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의 기준, 잣대, 바른 이해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수 이야기로의 회귀(回歸)—이것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당면한 신학적 질문이자 바울의 그것과 다른 점이다.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드러낸 또 하나의 신학하기다.

복음의 내용.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일까? 예수가 제자들을 부른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막 3:14-15 에 의하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1.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2. 전도를 하게 하며
3.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함이다.

첫째는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다. 이는 기존의 공동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고발이다. 둘째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道)을 전한다는 말이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 지배체제의 가치관(이데올로기)과 구분된다. 셋째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병자(피해자)를 돌본다는 말이다.

마가복음을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체드 마이어스는 예수의 사역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다. (Ched Myers, *Bing the Strong Man* (1988), “three major plot strands,” pp. 120-121)

1. 메시아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고히 하고(“to create and consolidate a messianic community”)
2.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대상으로 병 고침과 귀신축출, 자유를 선포하며(“Jesus’ ministry of healing, exorcism, and proclamation of liberation, the subject being the poor and oppressed”)
3. 지배체제의 사회적 상징적 질서에 대항하되, 이를 관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원과 예루살렘의 고위층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Jesus’ confrontation with the dominant socio-symbolic order, the subject being the stewards of that order: the scribes, Pharisees, Herodians, and ruling Jerusalem clergy”)

이 세가지를 기억하기 좋게 영어로 C.C.C. 첫 글자를 따서 Challenge, Care, Create 으로 접근해 보자. 이유는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를 통해 널리 보급된 사영리(Four Spiritual Laws)가 대부분 일반 교회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 그 속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나 공간복음서 이야기가 전무하다. C.C.C.라는 이미 잘 알려진 머리글자를 통해 사영리 위주의 일반 교회의 신학과 차별화하고 또 예수의 복음, 정신을 새롭게 하자는 의도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본다.

Challenge. 지배체제에 저항하기(Challenge/confront the dominant imperial ideology/theology/gospel). 이는 기존의 제국신학과 지배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자세다. 지(知)적인 영역으로, 자성(깨달음)의 영성이다. 세태를 보는 눈이고, 현재의 고통스런 삶의 원인을 분석하는 자세다.

예수는 이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몸소 꾸준히 생활화했다. 막 1:21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고 할 때, 미완료 형(ἐδίδασκεν)을 썼다. ‘가르치곤 했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지배체제의 감시 하에서도 예수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습관화, 생활화했다는 말이다.

지도자들과의 대립은 “그들에게 증거하라”(εἰς μαρτύριον αὐτοῖς, 1:44; 6:11; 13:9)는 말에 잘 드러난다. 그들이란 예루살렘의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사람들로, 헬라어 제3격(dative case)은 우호적(dative of advantage)이든 반우호적(dative of disadvantage)으로 세분화해서 번역된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경우는 모두 반우호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모두 저항의 의미를 담는다. 문둥병자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킨 제사장에게 저항해 보이라는 말이고(1:44),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고(6:11), 회당에서 매질하는 권력자와 임금 앞에서 증언하는 몸부림이다(13:9).

Care. 병든 자 돌보기(Care the sick, poor and oppressed). 이런 지배체제 하에서 병들고 아픈 사람, 곤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이 예수의 병고침 이야기다. 저항이 지적인 영역이라면, 돌봄은 정(情)적인 영역으로, 측은지심의 감성적 마음이다. 예수가 불쌍한 마음을 품었다(σπλαγχνίζομαι, 1:41)는 표현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아기가 여인의 자궁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감정이다. 긍휼한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 본성이다.

신체가 병들었다 함은 개인적인 불행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의 눈으로 볼 때, 그 사회와 공동체가 병들었다는 말과 같다. 한 예로, 문둥병자는 그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병든 하나의 증상(symptom)일 뿐이다. 개인 문제—죄든 병이든—로 치부할 성질이 아니라는 말이다.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층적 증상 보다는 심층적 원인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런 뜻에서 복음서의 병고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Create. 새로운 공동체 형성하기(Create the alternative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를 꾸민다는 것은 현재의 체제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의지적인 행위다. 지·정·의(知·情·意)에서 의(意)에 해당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용지물이듯(약 2:14-26) 깨달음 없는 행함이란 위험천만하기 마련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나 할까? 깨달음과 행함, 지정의는 늘 함께 가야한다. 지배체제가 감시와 억압에 의해 유지된다면, 예수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감동과 설득력에 기초한다. 말되는 신학이 필요한 이유다.

예수의 모임, 생활방식은 한 마디로 경계선이 없는 ‘더불어 살기’다. 포용과 친교, 용서와 화합은 늘 축제와 잔치로 연결된다(6:30-44; 8:1-10; 14:12-25). 그리고 이런 생활은 지연, 학연, 혈연에 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공동체 운동(move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1:38). 체제를 통해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세상의 가치관(이데올로기)과 확연히 구분이 되며, 이것이 아마도 초대 예수공동체(교회)의 본 모습이었을 것이다.

복음(εὐαγγέλιον, gospel)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은 ‘나쁜 소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로마제국의 복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함과 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과 선택을 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다종교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책에서 복음, 정신, 이데올로기, 가치관, 믿음 등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비종교적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의 정

신(Spirit, Geist)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곧 예수의 철학, 가치관이다. 이 복음을 단지 예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는 경배와 믿음의 대상일 뿐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믿기를 촉구하는 한편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명한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그의 일을 계승한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요 14:12). 예수의 복음과 그 내용을 살피고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본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다.

생각할 거리

1. 예수의 복음과 예수에 관한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2.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들 일상 생활 언어에 흔한 표현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까?